

영문학 텍스트상의 Colonialism과 탈식민주의 관점

박옥선¹⁾

Abstra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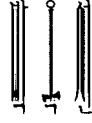
This study aims at exploring English literature's pivotal role in the colonial discourse and some point of views of postcolonial critics regarding the discourse. The relationship between colonialism and English literature was not dealt with by literary criticism in the past, but recently that is regarded as special interest topics in the postcolonial studies.

Language and literature are together implicated in constructing the binary of a European self and a non-European other, which is a part of the creation of colonial authority. And English literary texts are crucial to the formation of colonial discourses. But literary texts not only reflect dominant ideologies but also militate against them. Plays such as *Othello* and *The Tempest* evoke contemporary ideas about the bestiality or incivility of non-Europeans.

A wide spectrum of representations encode the rape and plunder of colonised countries by figuring the latter as naked women and placing colonisers as masters/rapists. But the threat of native rebellion produces a very different kind of colonial stereotype which represents the colonised as a usually dark-skinned rapist who comes to ravish the white woman who in turn comes to symbolize European culture.

Literary texts can be made to serve colonial interests through educational systems that devalue native literatures. Literary studies were to play a key role in attempting to impart Western values to the

1) 한국해양대학교 영어과 부교수



natives, constructing European culture as superior and as a measure of human values, and thereby in maintaining colonial rule.

Literary studies evoke a range of strategies. Historically, Shakespeare was used in South Africa to contest as well as foster racism. Then, Joseph Conrad, whom Achebe called a 'bloody racist', can be used to challenge colonialism. The study of colonialism in relation to English literature has thus opened up important new ways of looking at both.

I.

지구상의 사분의 삼에 달하는 인구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에 의해 직접적이고도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이 오늘날 글로벌시대의 인간의 인식체계에 어떤 심각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성찰은 아직 명쾌하게 이루어진 것같지 않다. 식민화된 나라들의 국민들이 겪는 제반 현실들은 유럽 식민국가들의 언술행위의 영향으로 야기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문학, 예술, 철학에서의 탈식민화 과정은 식민주의하에 이루어진 유럽식의 부호codes를 근본적으로 해체하고 전유appropriation하는 것이다. 그러한 탈식민주의 현상의 고찰에 선행하여 유럽 식민주의 내지는 제국주의의 제 현상을 만들어내는데 영문학의 텍스트가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를 간단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인문학 연구에서는 오랫동안 문학, 적어도 훌륭한 문학과 정치가 어떤 상관성이 있다는 생각에 거부감을 가져왔는데, 그것은 문학이 너무 주관적, 개인적 혹은 너무 보편적이고 초월적이어서 오염될 수가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식민주의와 영문학의 관계는 최근까지도 문학비평에서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 많은 식민담론이 문학연구 분야, 혹은 문학연구와 관련있는 전문 분야에서 나옴으로써 급속히 바뀌고 있다. 이것은 문학연구 안에서의 정설들이 단순히 증발되어 버렸다

는 말은 아니다. 식민주의나 종족의 분석은 성에 대한 분석만큼이나 아직은 여타 학문 연구와 가르치는 방향을 심각하게 바꿔놓지 않는 하나의 특별한 관심 주제로 간주되고 있다. 영문학과 식민주의의 관계에 대한 최근의 관심은 이들 각 용어에 대해 다시 진지한 성찰을 유도하고 있다.

우선, 식민담론과 반식민 담론에 있어서의 문학의 중추적 역할이 탐구되기 시작했다. 플라톤 이래로 문학이 현실계와 상상계 사이를 매개한다는 인식이 있어왔던 바, 마르크스 주의자와 탈구조주의자들의 이념논쟁에서는 이 매개의 본질을 규명하려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만약 언어와 기호들이 각기 다른 이념들이 서로 교차하고 충돌하는 위치(site)라면 문학의 텍스트는 언어와 기호들의 복합적인 다발들이므로 그러한 이념적 상호작용을 위한 매우 비옥한 장소가 될 수 있다. 더구나, 문학 텍스트는 개인, 사회적 맥락, 언어 작용사이의 복합적인 접합도 보여줄 수 있으며 또한 고유의 장점 때문만이 아니라 시장이나 교육제도 같은 다른 제도의 일부이기 때문에 사회에 보급된다. 이런 제도들에 의해서 문학텍스트는 본국의 대도시나 식민지에서나 식민자들을 위한 문화적 권위를 구축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지배이념을 반영할 뿐만이 아니고 식민문화 내에서의 긴장, 복합성, 낯설음을 기호화하기도 한다. 문학은 Mary Louis Pratt의 말을 빌리면 초문화화(transculturation)가 온갖 복합성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접촉지대contact zone'이다. 이 양측에서 쓰여지는 문학은 상대방 문화의 제반 양상들을 흡수하고, 전유하고 각인하며 그 과정에서 새로운 장르와, 아이디어와 정체성을 창조한다. 결국, 문학은 또한 재현 representation과 식민적 이념의 지배적 수단을 전유하고, 전복하거나 도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영문학에서 이러한 식민주의와 문학간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를 최근에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탈식민주의의 여러 이론가들의 관점에 입각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II.

유럽 르네상스 시대의 여행자들은 여행기를 쓰면서 허구적 요소에 자신

들이 과거 시대로부터 물려 받은 관점과, 여행을 통해 자기가 새롭게 관찰한 것을 뒤섞어 썼다. 자신의 생활영역 밖에 있는 것들과의 만남은 어떤 문화의 형성에 중심이 된다. 말하자면 안과 밖, 자아(주체)와 타자를 갈라놓는 경계선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항상 변하게 마련이다. 유럽 여행자들은 그들이 만난 거대한 신세계들을 그들 자신의 문화와 사회에서 얻은 관점과 이념적 여과장치를 통해 설명했던 것이다. 그러나 신세계를 여행하고, 약탈하고 정복하고 싶은 욕구는 또한 그들이 다른 나라와 민족들을 설명할 새롭고도 결정적인 틀을 필요로 했다. 이로 인해 검은 아프리카인들은 야만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검은색을 더러운 것과 연관시킨 중세적, 종교적 관념 때문이고, 또한 이것이 아프리카 흑인들을 식민화 하고 노예화 하기 위한 정당성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증의 외부세계는 물론이고 유럽문화 자체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게 되었는데 이를테면 미의 중심은 흰색이라는 생각과 함께 흑인은 추하고 미개하다고 믿게 되었는데 이런 미에대한 영국 르네상스식 관념이 형성되게 된 것은 그들 자신이 직접 정복하고 약탈하면서 이루어진 흑인과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서였다. (Kim Hall 1995 참조) 영국 민족주의는 유럽인들과 흑인들을 구별짓고 심지어 영국인과 이태리인 혹은 아일랜드인들과 구별짓는 문화적 차이에 근거를 두었다. 바꿔 말하면 이러한 문화적 차이가 영국의 해외 영토확장에 불을 지른 공격적 민족주의를 합리화했던 것이다.

비교문화적 접촉에 의해 나타난 그러한 공격적 식민주의의 합리화는 여행담 만이 아니고 인간의 내면관찰을 목적으로 하는 시나 극과 같은 문학작품이나 심지어 공적 관심사보다는 개인적인 관심사를 다루는 그런 글에서도 나타나 있다. John Donne의 시에서 연인들은 그들의 개인적인 공간을 급속히 팽창되는 바깥세계와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다. 'The Sunne Rising'에서 태양은 여인의 방을 기웃거리는 호색가이자 분주한 명칭이 Tom이 된다.

Busy old fool, unruly sun,
Why dost thou thus,
Through windows, and through curtains, call on us?

Must to thy motions lovers' seasons run? (ll. 1-4)

이와 같이 영토확장이라는 큰 이미지를 여인의 방이라는 작은 영역과 연관시킨 것은 이 당시에 남녀의 결합에 대한 이념이 증대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고 비속한 혼외의 성적 의미를 함축함으로써 프로테스탄트적인 견해에 도전하려는 것이다. 이와는 거꾸로, 개인적인 것과 성 예찬은 당시의 영토확장의 이미지로 표현된다. Donne의 'Love's Progress'에서 여인의 몸은 새로 확장된 영토의 지도로 묘사되고 있다.

The Nose (like the first Meridian) runs
 Not 'twixt an East and West, but 'twixt two suns:
 It leaves a Cheek, a rosie Hemisphere
 On either side, and then directs us where
 Upon islands fortunate we fall,
 Not faynte Canaries, but Ambrosiall,
 Her swelling lips . . . and the streight Hellespont betweene
 The Sestos and Abydos of her breasts . . .
 And Sailing towards her India, in that way
 Shall at her fair Atlantik Navell stay . . . (Donne 1985: 181)

또 다른 시에서는 연인의 관계가 식민자들과 그들이 발견하는 영토와의 상호관계로 대치되고 있다. Donne 의 'To his Mistris Going to Bed'을 보자.

Licence my roaving hands, and let them go,
 Before, behind, between, above, below.
 O my America! mt new-found-land,
 My kingdome, safeliest whn with one man man'd,
 My Myne of precious stones: Me Emperie,
 How blest am I in this discovering thee. (1985: 184)

이와 같이 식민적 접촉은 문학 텍스트의 언어나 이미지리에 반영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식민 활동은 휴먼 드라마가 행해지는 배경 내지는 맥락일 뿐만 아니라 이들 문학 텍스트들이 정체성과 상호 관계와 문화에 관해 말하는 중심 양식이 되어 있다. 또한 위의 두 번째 인용에서 보듯이 성 관계와 식민 관계는 서로 유사하게 나타나 있다. 위의 시 속의 남성 연인은 여성 신체의 적극적인 발견자로 묘사되고 있다. 이 남성은 수동적인 태도로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영토에 침투해서 그것을 소유하는 유럽 모험가와 똑같이 여성의 몸을 능동적으로 발견하고 그것을 탐색하고 싶어 한다. 여기서 여성의 몸이 줄 성적 기대감은 식민지가 약속하는 부와 일치되고 있다. 따라서 위의 두 번째 인용 시에서는 연인/식민자가 여성의 몸/지구를 횡단해서 그녀의 성기/인도 즉 부의 중심지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나 여성/식민지의 유사성은 식민지가 보장해주는 부가 여성의 몸을 취하는 데서 오는 기쁨은 물론이고 남성의 소유를 위한 합법적 대상으로서의 지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전도된 논리로 작용한다.

언어와 문학은 둘 다 주체로서의 유럽과 타자로서의 비유럽이라는 이원체 구축에 함께 연루되어 있고 이 이원체 개념은 Said가 *Orientalism* 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식민적 권위 창출을 위한 결정적 역할을 한다. 16세기 미국의 식민담화 형성에 관한 Peter Hulme의 작품에서는 이에 관한 매우 분명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는 cannibal과 hurricane의 두 단어가 토박이 미국어였음에도 식민적 담화를 강화하기 위해 주요 유럽 언어에 새로운 단어로 채택된 것임을 밝히고 있다. (1986a: 101) 이들 두 단어는 피상적인 의미인 특별한 자연적, 사회적 현상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유럽대 아메리카, 문명대 야만이라는 대립적인 개념을 함축하게 된다. hurricane은 태풍의 일종이라는 의미와 함께 카리브사람 특유의 무엇을 의미하기 시작했고, 따라서 이 단어는 카리브지역 자체의 폭력성과 야만성을 나타냈다. 이와 비슷하게 cannibalism 은 식인이라는 의미 이외에 식인종을 뜻하는 옛 단어인 anthropophagy 의 유사어로서만 사용된 것이 아니고 야만인들이 유럽인들에 맞서서 그들을 잡아먹을수도 있다는 위협을 의미했다. Hulme은 또한, 비록 hurricane이 자연현상을 나타내고 cannibalism이 문화적인 관습을 나타내고 있다 하더라도 두 단어 모두가

유럽 바깥에 있는 부정적인 어떤것을 나타내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더구나, cannibal의 어원은 개를 뜻하는 라틴어 canis로서 '서인도제도의 원주민 식인종들은 개처럼 사냥해서 그 사냥감을 잔인하게 다루었다'는 견해를 강화하게 된다. 셰익스피어의 *The Tempest*에 등장하는 인물로서 주인 Prospero를 섬기는 반짐승의 노예인 Caliban의 이름은 cannibal의 철자 바꾸기에 다름 아니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Hulme은 논하고 있다 (Hulme 1986a: 89-134). 이런 식으로 문학은 식민과정에 중심이 되는 관점과 의미접합의 방식을 반영하고 창조한다.

문학 텍스트는 상상을 통해 개인에게 작용하기 때문에 식민담화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작용을 하기는 하나, 지배적인 이념을 반영하기도, 그 이념에 역작용을 하기도 한다는 주장이 있다.

Literary texts are crucial to the formation of colonial discourses precisely because they work imaginatively and upon people as individuals. But literary texts do not simply reflect dominant ideologies; they also militate against them, or contain elements which cannot be reconciled to them. Such complexity is not necessarily a matter of authorial intention.

(Loomba: 74)

셰익스피어의 *Othello*와 *The Tempest*는 비 유럽인들이 야만적이고 비 문명적이라는 당시의 생각을 일깨우는데 중요한 구실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 극작품들이 종족과 문화에 대한 당시의 지배적인 태도를 확인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그런 태도에 대해 의의를 제기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달리할 수 있다. *Othello*는 다른 종족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랑에 경고를 보내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 사회를 고발하고자 하는 것일까. *The Tempest*는 Caliban이 짐승같은 야만인이라는 Prospero의 견해를 지지하는 것일까 아니면 식민지배의 인간성 상실을 묘사하고자 하는 것일까? 물론 셰익스피어의 근본의도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이들 극이 시대와 지역을 달리하는 독자들

에 의해 각기 다르게 읽혔으리라는 것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예를 들어, *The Tempest*의 경우 식민주의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한 편의 로맨스로 읽을 수가 있는가 하면, 자연과 미개인을 모두 압도하는 백인의 지식의 승리로 해석할 수도 있고, 노예가 된 Caliban의 투쟁을 나타낸 반식민 텍스트로 전유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문학과 문화적 관행 역시 문화의 상호작용을 구현한다. 본질상 영국춤이라고 간주되고 있는 모리스 춤은 십자군을 통해 유럽에 갖고온 무어족 춤에서 발전된 것이다. 사실 중세와 초기 근대를 통해서 비유럽 지역의 텍스트와 전통, 특히 아랍의 것을 유럽 것으로 전유한 것을 볼 수 있다. 그 결과 유럽 문학은 유럽에서 유럽인에 의해 쓰여진 문학일 뿐만 아니라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의 시련 속에서 창조된 것이다. 이러한 문학 텍스트의 통합적 본질 내지는 이념적인 복잡성을 이유로 문학 텍스트가 역사적, 정치적 과정을 초월한 것이라는 결론은 성급한 것이다. 오히려 우리는 문학 텍스트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쓰는 과정에서 어떻게 식민역사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심지어 다양한 문학과 문화의 깊은 상호 작용을 인정하는 비교문학마저도 계층적으로 조직되어 있고, 그 중심 가설은 바로 미국과 유럽이, 그들의 정치적 입지 때문 만이 아니라 그들의 문학이 가장 연구할 가치가 높기 때문에 세계의 중심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Said는, 서구 문화 형식들이 제국주의가 만든 역동적 지구 환경에 놓여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995: 22-28)

George Lamming은 그의 에세이 'The Occasion for Speaking'에서 식민적 주제를 평가절하하고 억제하는 데에서도 그렇지만 식민주의에 도전하는데에도 문학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1960, 36-37) 그러나 문학이외의 예술형식, 즉 시각예술이나 문학 텍스트 아닌 다른 글에서도 유럽 식민담론의 양상을 볼 수 있다. Peter Hulme은 식민 담론에 나타나 있는 여성의 위치를 논하면서 16세기 Stradanus의 *Vespucci discovering America*를 예시하고 있는데 이 그림에서 베스푸치는 두 손에 각각 남 십자성과 천체관측기를 들고 America를 바라보며 서 있다. 아메리카는 그물침대에서 알몸으로 반쯤 몸을 일으

킨 모습이다. Hulme의 분석에 의하면 이 그림은 식민 드라마를 그대로 기호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아메리카는 알몸의 여인으로 거기에 분명하게 발견된 상태이다. (1985, 17) 그 배경에 그려져 있는 식민종들은 이 신대륙 원주민의 폭력성, 야만성을 예측케 하고 이것이 식민자들에게 아메리카 대륙의 점령을 위한 정당성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베스푸치가 역사상의 한 개인이고 아메리카는 대륙 전체이며 이 개인과 대륙의 만남이 식민적 패러다임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르네상스 기간에는 새로운 예술품과 새 지도는 유럽 남성들에게 신대륙을 약속했고 이것은 새로운 여인을 약속받은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었던 것이다.

Sir Walter Raleigh는 남아메리카의 Guiana를 최초로 탐험한 인물인데 그는 Guiana를 '아직도 처녀성을 간직한 여인'이라고 설명함으로써 앞에서 말한 베스푸치의 아메리카와의 만남과 같은 입장이다. 이와 같이 식민담화에서는 식민자는 남성으로, 피식민자는 알몸의 여성, 혹은 처녀로 기호화 함으로써 식민자는 주인/점탈자로 자리매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원주민의 반항에 대한 위협의식이 또다른 식민적 정형(stereotype)을 만들고 있는데 이 정형에서는 식민지 원주민은 (대개 흑인이다) 백인 여성을 겁탈하는 가해자가 된다. 물론 백인여성은 유럽문화를 상징하고 있다. 셰익스피어의 *The Tempest*에 등장하는 켈리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 프로스페로는 켈리번이 자기 딸 미란다에게 강간의 위협을 가해온다고 주장한다. 이는 곧 식민주의 곧 강탈이라는 등식을 뒤엎는 것으로서 식민적 만남의 폭력성을 식민자로 부터 피식민자로 빗나가게 하는 것이다. 어쨌든, 흑인 강탈자의 모습은 제국주의 약탈에 대한 원주민의 반응으로, 혹은 식민 범죄를 합리화하려는 유럽의 노력으로, 혹은 흑인종족들의 병리학 등으로 이해되면서 식민주의와 관련된 작품 어디에서나 항상 나타나는 상식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흑인 곧 강탈자라는 식민적 정형은 19세기 식민지 인도에서는 또 다른 정형을 형성하게 된다. 1857년 부터 1859년까지 영국군에 종군하고 있던 인도 토민군에 의해 촉발되고 급기야 농민, 원주민 지배계층까지 가담했던 소위 세포이 폭동 The Sepoy Mutiny 이후부터는 이 식

민적 정형은 힌두인 곧 영국여성 겁탈자로 바뀌어진 것이다. 세포이 폭동 이전에는 겁탈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고 인도인은 'mild Hindu'로 인식되어 있었지만 이 폭동 이후 영국인은 충격을 받게 되었고 힌두인에 대한 종래의 믿을만한 정설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때 생겨난 것이 바로 인도인/겁탈자의 정형이다. Jenny Sharpe는 'truth effect' 를 언급하면서 여성을 강간하는 이야기가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이 새로운 정형을 만드는데 공헌하고 있다고 하면서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들이 실제로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강간행위가 있었던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내었다'(1993, 67)고 말하고 있다. 이 '진실효과' 개념이야말로 담화가 실제 사건과 똑같은 효과를 낸다는 Foucault식 개념인 것이다. Sharpe는 당황한 영국 정부가 어떻게 이 강탈 이야기를 이용해서 그들의 권위를 강화시키고 식민지 개화의 사명이라는 미명하에 식민사업을 추진해갈 수 있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영국당국의 권위가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영국여인이 강간당한 이야기를 유포시킴으로써 조작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식민주의에 대한 침해의 기호로 작용한다는 것이다(1993, 4).

인도를 무대로 하는 모든 영국소설은 바로 이러한 역사를 표현하고 있다. E.M. Forster의 *A Passage to India* 에서는 영국 여인을 강간했다고 부당하게 기소된 인도 남성을 등장시킴으로써 끔찍한 악몽으로서의 세포이 폭동을 상기시키는 효과를 내고 있다.(Sharpe, 123) 또한 Paul Scott의 *The Jewel in the Crown* 에서는 영국인 여인을 강간한 죄로 기소된 인도 남자가 영국의 식민 당국에 의해 어떻게 침해 받는가를 묘사함으로써 강탈이 제국주의를 위한 은유로 나타나 있다. 그래서 식민적 권위의 위기가 팽배했던 당시에 이 두 소설은 식민사업의 도덕적 가치를 확립하고자 했던 초기 담화를 환기시키고 있다. Scott 소설의 과거 회귀식 이야기는 바로 영국 지배에 대한 조직적 저항이 있을 때에 한해서만 식민주의가 침해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Sharpe, 141). 여기서 우리는 어느 특정 문학 텍스트가 반드시 친 식민적이거나 반 식민적인 것은 아니며 동시에 둘 다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서 최근에는 제국주의적인 주제를 주변적인 것으로 다루고 있다고 여겨져온 작품들 마저도 유럽 팽창주의의 맥락에서 재해석되고 있

다. Gayatri Spivak이 "It should be possible to read nineteenth-century British literature without remembering that imperialism, understood as England's social mission, was a crucial part of the cultural representation of England to the English"(1985a, 243) 라고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19세기 영국문학은 제국주의의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옳다. 그렇기 때문에 19세기 영국 소설은 아무리 심리 내면의 통찰이나 비정치적인 것을 주제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식민주의의 그늘을 완전히 벗어나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Loomba, 82-83). 비록 빅토리아 소설이 상세한 식민적 묘사를 외면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식민주의의 시각으로 읽을 때는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제인 오스틴의 *Mansfield Park*에 등장하는 Sir Thomas Bertram의 대저택은 서인도제도 부근의 Antigua 섬에서 노예 노동력으로 경영되는 사탕수수 농장의 수입으로 유지되고 있다. 샬롯 브론테의 '제인 에어'의 경우를 보자. Terry Eagleton과 같은 맑시즘 비평가들은 이 소설의 주인공 제인이 가난한 고아소녀로서 부잣집 가정교사로 있다가 그 주인이자 유부남인 로체스터의 부인이 되는 삶의 역정을 제인의 신분상승에 초점을 맞춰 읽는다. 또한 Sandra Gilbert같은 페미니즘 비평가들은 제인이 자신의 삶의 문제에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의 사랑을 찾아 떠났던 주인의 집을 다시 찾아온다는 점에 무게를 두고 이 소설을 영국소설에서의 여성적 주체의 등장 내지는 여성적 개인주의의 탄생에 대한 이정표적인 텍스트로 전유한 바 있다. 그러나 1966년 Jean Rhys의 소설 *Wide Sargasso Sea* 가 발표되면서 '제인 에어'에 대한 그러한 책읽기는 이미 흔들리게 된다. 이 소설에서는 '제인 에어'에서 주변인물로 머물러 있는 Bertha Mason을 확대해 놓고 있다. 버타 메이슨은 로체스터의 본부인이자 광기로 인해 감금상태로 갇혀 지내다가 저택에 불이 나서 불타 죽음으로써 제인으로 하여금 로체스터와 결혼에 이르게 하는 인물이다. 그런데 Rhys는 자신의 소설에서 이 인물을 주변으로부터 중심으로 끌어올리고 그녀의 광기를 백인 Creole 여인의 불행과 억압으로 고쳐쓰고 있다. 그 불행의 원인은 그녀가 카리브해의 크리올 섬의 농장 재산을 위해 결혼하고 거기서 영국으로 옮겨와 저택에 갇히는 데서 야기된다. 스피박은 여성주의 비평가들이 정신분석적으로 해석

한 결과 버타 메이슨을 제인의 '어두운 대역'(dark double) 이라고 보는데 대해 비판을 하면서 19세기 여성주의적 개인주의는 필연적으로 제국주의의 드라마에 의해 굴절되었으며, 발언하고 행동하는 주체로서의 백인여성을 내세울 경우 마저도 원주민 여성은 주변화되고 비인간화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985).

이러한 입장은 Benita Parry(1987)에 의해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는 고통받는 카리브 여인 버타 메이슨은 Rhys의 소설에서는 사실은 식민지 출신의 여성이 아니고, 처음에는 앙뜨와넷으로 불리었으며 흑인 농장노예인 크리스토파인의 백인 애인으로서, 이 흑인 노예는 착취당하고는 있지만 버타가 로체스터와 이 섬의 계급관계, 인종문제 등을 비판할 때 침묵당하거나 주변인물로 축소되지도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물론 소설 '제인 에어'에는 크리스토파인은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버타의 세계가 영국 국내의 평화와 번영의 건설에 얼마나 필수적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Wide Sargasso Sea*를 단순히 *Jane Eyre*와 반대의 관점에서, 즉 식민적인것에 반대되는 탈 식민적 관점에서만 읽을 수는 없다는 주장이 있다. 그 이유는 이 소설의 작가가 백인 식민 엘리트이며 그러면서도 자신이 식민 본국인 영국적 규범에 반대하는 입장임을 항상 주장했기 때문이고, 또 이 소설 자체는 인종문제와 노예문제를 다루고 있으면서도 근본적으로는 노예해방에 의해 파멸된 농장주 계급에 대해서는 동정적이기 때문이다(Hulme 1994, 72).

문학과 식민주의의 관련성을 문학 텍스트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가 아니라 지배적인 비평적 견해가 그 문학 텍스트의 의미를 무엇이라고 보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 보자. 대학에서 기본교재로 채택하고 있는 셰익스피어의 '오텔로'의 경우, 오랫동안 비평가들은 주인공 오텔로가 흑인이라고 인정하기를 거부했다. 필자도 비평적 안내서에서나, 강의실에서 오텔로가 완전한 흑인이 아니라고 배웠던 기억이 있다. 말하자면 그는 진짜 흑인은 아니고 속 피부는 흰데 겉만 약간 거무스름한 무어인일 따름이라는 식이다. 따라서 이 극에서 오텔로의 남성적 질투는 여성인 데스데모나의 나쁜 행실이 야기한 보편적 인간의 속성이 될 수 있다. 만약 오텔로가

흑인임을 인정한다면 그의 질투, 격정적인 성격, 사리분별이 없는 행위 등은 그의 인종 탓이라는 주장을 끌어내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식의 읽기는 반박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오델로를 근본적으로는 백인이며 동시에 검은 피부를 어떤 정형에 의해 이해하려고 하는, 다시 말해서 검은 것과 더럽고 야만스럽다는 것을 동일시하려고 하는 그런 정형을 고집할 필요가 있는 인종주의적 이해에서는 양해될 수 있고 또 사실 양해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 극에서 인종관계를 진지하게 고려한다면 성적 질투라는 주제는 일반적인 인간관계에 대한 보편적 진술로 볼 수는 없으며 오히려 그것은 오델로와 데스데모나가 처해있는 인종차이에서 오는 결정적인 인종문제의 한 양상이며, 따라서 이아고의 간계는 동기가 부족한 악행이 아니라 인종적 불안과 증오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오델로'를 인종을 달리하는 주인공들 사이의 사랑에 대한 옹호 내지는 경고로 이해할 수는 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전 세계를 통해서 공연에서나, 비평적 평가에서나, 교실에서 가르칠 때나, 이 극의 인종적 주제는 영국, 남아프리카, 인도 등지에서 각기 다른 맥락에서 그들의 인종주의 이념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편으로 읽히고 있다는 점이다.(see Cowhig 1985). 이들 지역에서는 '오델로'는 셰익스피어만이 아니라 영국다움(Englishness)의 문화적 권위를 강화시키기 위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식민적 이념과는 거리가 멀거나 비판적 입장에 있는 문학 텍스트마저도 식민지의 토착 문학을 평가절하시키는 교육제도를 통해서나 유럽 텍스트가 우월한 문화와 가치를 대변한다고 주장하는 서구 중심적 비평에 의해서, 식민적 관심사에 부합되도록 읽을 수 있다. 문학연구가 영국 대학에서 학문의 한 영역으로 자리매김된 것은 사실 식민지 경영의 필요성과 긴밀한 연관성이 있었다. 영문학에 관한 지식이 영국의 관심사들을 집행하게 될 사람들에게 필요하리라는 가정에 따라 인도인 공무원 시험에서 이와 관련한 문항을 넣기 시작한 후에 영문학은 런던과 옥스포드에서 공식적인 학문으로 제도화되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원주민 스스로가 서구 문학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Macaulay는 인도에서의 영국의 교육은 '피부색과 피는 인도인이지만 취향, 생각, 도덕, 지식에 있어서는 영국인답게'(1972, 249) 되도록 인도 원주민을 훈련시키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문학연구는 원주민에게 서구적 가치를 알게해서 유럽문화를 우월하며 인간가치의 척도라고 믿게 하며 나아가 식민통치를 하는데에 그 주요 역할이 부여되었다. 따라서 영문학 연구는 경제적 물질적 약탈을 위한 하나의 가면이 되었고 정치적 통치의 효과적 형식이 되었다. 식민지 교실은 영문학 토대가 된 발전적 태도와 전략을 위한 시험적 근거의 하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문학과 관련된 어떤 인간의 역할- 예를 들어, 성격형성, 미적 감각의 발달, 윤리적 사고의 훈련등등이 같은 전통의 보호자들에 의한 사회 정치적 지배 고정에 필수적이라고 생각되었다”(Viswanathan 1990, 3).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문학과 문화는 정치영역에 대조적인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이 되는 것이다. Said도 그렇거니와 Viswanathan도 그러한 문학 연구를 거부하거나 조장하거나 간에 인도인들의 역할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 때문에 비판받아 왔다. 사실, 많은 인도인들은 영국식 교육을 스스로 요구했는데 이것은 영국의 인도통치를 반대한 개혁가들과 민족주의자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영국의 식민정책 입안은 원주민의 정치관에 의해 이루어지고 만들어진 것이지 단순히 영국에서 수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문학교육을 뒷받침하는 이념중의 하나는 문학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집단과 그것을 배워야만 되는 집단, 쉽게 말해서 식민 본국의 시민과 식민지 원주민의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문화적 틈이 있다는 가설이다. 그런데 문학교육은 이러한 틈을 메우기 보다는 오히려 열등감을 강화시킨다는 점이다. 광대가 귀부인이 잠든 침실을 들어가면서 스스로 징박은 자신의 구두가 소리를 낼까봐 발꿈치를 들고 걷는 모습은 바로 이러한 가설에 대한 적절한 비유가 된다.

As a clown will instinctively tread lightly and feel ashamed of his hob-nailed shoes in a lady's boudoir, so a vulgar mind may, by converse with minds of high culture, be brought to see and deplore the contrast between itself and them.

(Baldick, 66)

그러나 그러한 문화적 지배는 영문학을 학교에서 배우지 않으면 안되는 집단에게는 창의력과 지적전통의 억압을 의미했다. Macaulay가 ‘선반 하나 분량의 영문학은 인도와 아라비아의 모든 서적과 맞먹는 가치가 있다’고 한 말은 악명높다. 물론 동양학자들이 고대 문화 창작물과 인도의 문학 텍스트같은 원주민 작품들을 옹호했지만 그들 역시 현대의 창작물은 분명히 희생시키면서, 다시 말해서 당시의 작품은 예외로 한 채 고대작품만을 대상으로 원주민 예술을 옹호했다는 것이다. 그결과 원주민의 지적산물은 아프리카에서 그랬듯이 철저히 멸시당하거나 인도에서처럼 고색창연한 과거의 산물로 치부되게 했던 것이며 나아가 식민사회는 그들 자신의 문화적 유산으로 간주되던 양건 간에 독립된 노선으로 발전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기게 된 것이다(Loomba, 87).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보아야 하는 것은 그렇다면 인간적 가치의 믿을만한 척도로서의 문화는 어떤것이라고 보았는가 하는 것이다. 스코틀랜드 작가 James Kelman이 지적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영국문화의 지배권을 말할 때 요크셔나 서머셋지역의 전통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으며 영국 내에서도 지배적인 문화, 다시 말해서 사회, 경제,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Great Britain의 소수 엘리트지역의 문화를 말하며 따라서 그런 기준에서 보면 스코틀랜드 문화는 열등하며, 그 곳 주민도 열등하다는 것이다(1992, 71-2)” 이러한 평가절하과정은 식민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모국의 성(gender), 계급, 소수민족의 차별을 확고하게 하기 위한 시도였다. 그 한 예가 바로 영문학의 창안을 위해 스코틀랜드 언어와 문학을 주변화시켰다는 사실이다. 비록 종족의 경계와 문화적 경계선이 세계 각 지역에서 강도를 달리해서 그어졌고, 또한 아프리카의 경우 그들의 식민 지배자들에 의해 흡수된 원주민들의 배경과 인종을 잊어버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식민지배가 지역주민의 분할을 내포했다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영문학 연구의 식민적 이념에 관한 다양한 주장들이 제기되어 온 바 이에 의하면 교육제도가 지배적인 이념들을 유포시키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런 통치과정이 먹혀들어갔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사실 식민지 지식인들은 그들의 지배자들을 흉내내게 되었으며 따라

서 식민자들의 의도대로 교육의 효과는 분명하게 나타난 것이다. 인도에서 문학, 과학, 종교는 서로 혼합되어 있었으며 영국식 교육을 받은 인도인들은 영국인을 대리해서 원주민을 일깨우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물론 그러한 원주민 지식인의 행동은 진심에서 우러난 충성은 아닐수도 있다. Homi Bhabba는 그러한 원주민 지식인의 '흉내내기(mimicry)'를 식민지배를 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할 수 있다고 말한다(1994, 125-133). 그는 최근에 언어, 발언(enunciation), 주체(subject)에 관한 이론을 이끌어 내면서 의사소통이란 결코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니며 언제나 말해지는 것과 들리는 것 사이에는 항상 미끌어지기(slippage)와 틈(gap)이 생기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식민적 맥락에서 보면 영어로 된 영국의 문헌, 즉 성서를 비롯한 종교서적이건 셰익스피어같은 문학서적이건간에 모든 서구문헌은 영국의 권위 그 자체를 상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한 개 문헌이 전체 문화를 대표하게 되는 과정은 복잡적이며 결국 흉내내기와 베끼기 같은 실천으로 차 있다. 이 복사(replication)과정은 결코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창작된 작품은 원래의 이미지를 그대로 갖고 있지 않고 재생산되는 과정에서 맥락이 바뀐 형태로 나타난다. 그래서 Bhabba는 식민적 권위는 이러한 복사과정에 의해 혼성성hybridity과 양면성ambivalence을 갖게 되고 그럼으로써 지배담론master-discourse을 전복시킬 여지를 피식민 지식인들에게 열어놓았다고 주장한다. 어쨌든 피식민 작가들의 흉내내기와 식민지에서의 문학연구는 어떤 맥락에서 보아야 할까.

기독교가 식민지 이교도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셰익스피어가 미개인들에게 읽혀지되는 과정은 이들 서적들의 권위를 확인하기 위해 계획되었고, 나아가 이들 서적을 통해서 유럽(영국)문화의 권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말하자면 앞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식민지 지식인들로 하여금 여인의 침실에서 저절로 자기의 징박은 구두 소리가 나지 않게 살금살금 견제하는 것과 같은 심리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 근본 의도는 식민자와 피식민자의 사이에 난 메꿀 수 없는 틈 내지는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원주민을 개종시키기 위한 노력은 식민적 텍스트에 간직되어 있는 종교적, 문화적 진실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가정에서 비롯한다. 이 가정에 의하면 문화와 국민 사이의 틈은 메꾸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타자other로서의 식민지 원주민을 교육시키고, 개화시키며, 흡수co-opt시킬려는 의도의 핵심에는 근본적인 모순이 있게 되는 것이다. 피식민들이 그러한 모순을 어떻게 포착하고 이용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다. 셰익스피어의 *The Merchant of Venice*에서 샤일록이 내뱉는 말 가운데 "I am a Jew. Hath not a Jew eyes?" (III, I, 51-57)가 있다. 이말은 인간의 평등이라는 명제를 대변한 것으로서 셰익스피어의 권위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인종차별에 관한 식민주의적 견해를 수용하기 보다는 오히려 도전하고 있다. 만약 샤일록의 이 말을 반 식민주의 작가가 인용한다면 그것은 영국인의 셰익스피어 이용을 흉내내는 것이 된다. 이러한 패턴이 보다 광범하게 퍼져 있음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

Hindu 대학은 인도 민족주의의 온상이었으며 대부분의 초창기 인도 민족주의자들은 영국식 교육을 받았고 독립을 위한 논의를 위해 영문학을 이용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논의의 한 형식이 제국주의 역사가들에 의해 제시되었던 바, 이들은 영문학, 특히 셰익스피어와 전반적인 영국식 교육이 원주민 사이에 자유와 해방의 개념을 길러주었다. 다시 말해서 원주민 교육의 자료로 영국의 문학 텍스트를 사용함으로써 원주민에게 민주주의와 인류평등에 관한 서구 계몽주의를 가르친 것이 되고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인도인들과 아프리카인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을 위한 평등을 요구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아마도 이러한 역학을 가장 잘 상징하고 있는 것은 셰익스피어의 *The Tempest*에서 켈리번이 프로스페로와 미란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장면일 것이다.

You gave me language, and my profit on't
Is, I know how to curse. The red-plague rid you
For learning me your language!

(I, ii, 363-365)

켈리번은 자신을 포획해서 노예로 부리는 주인 프로스페로에게서 말을 배웠기 때문에 저주할 줄을 알게 된 것이다. 그러나 Loomba는 그런 식의

추론이 갖고 있는 문제는 전복subversion 내지는 반역이 전적으로 식민 권위 자체의 기능약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라고 말하고 있다. Bhabha 역시 반식민 전복을 허용하는 것은 식민적 권위가 그 자체를 재생산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고 그 결과 원주민의 지적, 정치적 반식민 활동의 근원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Loomba는 지적하고 있다. (1998, 91)

이 문제 즉 식민국가의 지배언어, 문학, 문화, 철학적 사상들이 방향을 바꿔 전복적 목적을 위해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그리고 그밖의 상반된 담화의 중심에 있어왔다. 문학연구의 영역에서 이 주제에 관해 가장 잘 알려진 논의는 Ngugi wa Thiongo와 Chinua Achebe사이에 이루어진 바 있다. 아케베에 의하면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에 원래의 다언어와 더불어 식민지화 과정에서 생긴 영어가 공존하게 되면 나이지리아나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의 민족문학은 영어로 쓰여지거나 쓰여질 것이라는 것이다. 그는 영어로 자신들의 경험을 표현해낸 아프리카 출신 작가들의 창조적 혼성성을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For me there is no other choice. I have been given this language and I tend to use it. . . . I feel that the English language will be able to carry the weight of my African experience. But It will have to be a new English, still in full communion with its ancestral home but altered to suit its new African surroundings.

(Achebe 1975, 103)

아프리카 태생이거나 뿌리를 아프리카에 두고 있으면서도 식민본국의 문화권 내에서 살고 있는 작가들과 비평가들, 이를테면 James Baldwin이나 David Dabydeen도 이와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Thiongo는 Achebe의 그러한 입장에 대해 반대하면서 자신은 영어보다는 Gikuyu언어로 쓰기를 고집하고 있다. 그는 문화와 언어사이에 여러 관계가 있음

을 지적하고 식민주의는 언어를 지배함으로써 문화속에 잠식해 들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의 경우 “유럽언어로 쓴 아프리카인의 문학은 작가에서나, 주제적 관심사에서나, 소비에 있어서 민족적 부르좌의 문학”이었다(Achebe 1986, 20). 이 문학이 바로 지구상에 일어난 ‘위대한 반식민적, 반제국주의적 격변’의 일부였지만 그러면서도 과거 식민지 조국에서 권력을 쥐게되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냉소적이고 환멸적인 시선을 던졌으며 나아가 유럽언어로 교육받지 못한 소위 ‘인민’들에게 말하고 싶어했기 때문에 그러한 자신들의 모순으로 인해 괴로워했던 것이다(Achebe 1986, 21). Thiongo는 그런 인민의 일부이면서 그들 원주민 언어로 글을 쓴 작가들과 외국어에 집착해서 그 언어로 작품활동을 한 작가들을 구별하고, 정치 문화적 아이덴티티와 문학 표현의 매개 즉 언어 사이의 유기적인 겹치기overlap현상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반식민주의의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작품들은 이 두 시각을 모두 채택해왔다. 더구나 언어의 선택이 반드시 이념적 내지는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것도 아니다. Solomon T. Plaatje는 *Mbudi* 라는 소설을 영어로 썼다. 그는 이 소설에서 Zulu족에 관해 묘사할 때는 Richard Haggard의 스타일과 똑같이 썼다고 말하고 있다. Plaatje는 그러나 이 소설에서 셰익스피어와 성서뿐만 아니라 이프리카적인 구어형식에 영감을 받은 어휘들을 이용해서 식민적 강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드높이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원주민 언어로 작품을 쓰는 작가들이 반드시 반 식민적이고 혁명적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 그들도 유럽 방식과 아이디어에 오염되어 있을 수 있다. O Chandu Menon이 쓴 소설 *Indulekba*의 경우가 그런데 이는 토착어 Malayalam 어로 쓰여진 원주민 소설이지만 ‘영국식으로, 영국적 취향을 맛볼 수 있도록’(Pannikar 1996, 97-98) 쓴 소설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동일한 문학 텍스트가 식민주의와의 관계에서 읽혀질 때에는 분석자의 입장 혹은 관점에 따라서 친식민, 아니면 반식민적인 것으로 읽혀질 수 있으며, 또한 지배언어로 쓰였다고 해서 친식민적이지도, 토착언어로 쓰였어도 반식민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III.

언어와 문학이 주체로서의 유럽과 타자로서의 비유럽이라는 이원체 구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은 탈식민 문화비평에 의해 규명된 바 있다. 이 이원적 개념이야말로 식민적 권위의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바 여기에는 흰색의 주체적 위치와 유색의 주변적 위치라는 인종주의가 가세함으로써 강화되고 있다.

영문학 텍스트는 식민주의 초창기부터 지배담론을 대변하기도 하고 반 지배담론을 위해 전유되기도 하며 식민권위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문학의 역할이 교육이라는 제도에 크게 힘입고 있음도 알 수 있다.

그러나 탈식민적 관점은 과거의 문학텍스트의 분석방법을 전복하고 새로운 분석을 하고 있다. 동일한 문학텍스트의 분석은 식민국가의 입장과 피식민국가의 입장에 따라 정반대의 분석을 가능하게 했다.

다시 말하면 문학과 식민주의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이 둘을 보는 새로운 방법들을 진술해왔다. 아마도 이들 방법 가운데 보다 중요한 것은 최근의 문학기론과 비평이론이 사회적 분석에 영향을 준 방법이 아닐까 싶다. 문화비평과 문학비평의 발달은 문학 텍스트를 보다 완전하게 전후 맥락에 맞게 읽도록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반대로, 사회적, 역사적 과정은 텍스트적이며 그 이유는 그 과정들은 재현을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으며 이러한 재현은 이념적, 수사적 전략을 포함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Works Cited

- Achebe, C. (1975) *Morning Yet on Creation Day*, New York: Anchor Press/Doubleday.
- Baldick, C. (1983) *The Social Mission of English Criticism*, Oxford: Clarendon Press.
- Bhabha, N.K. (1994) 'Remembering Fanon: Self, Psyche and the Colonial Condition', in P. Williams and L. Chrisman (eds.), *Colonial*

- Discourse and Postcolonial Theor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pp. 112-123.
- Cowhig, R.(1985)'Blacks in English Renaissance Drama and the Role of Shakespeare's *Othello*', in Dabydeen (ed), *The Black Presence in English Literature*, Manchester: Manchester UP, pp.1-25.
- Donne, John.(1985) *The Complete English Poems of John Donne*, C.A. Patrides (ed.), London and Melbourne: Dent.
- Hall, K. (1995) *Things of Darkness, Economics of Race and Gender in Early Modern England*, Ithaca, NY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 Harley, B. (1988) 'Maps, Knowledge and Power', in D. Cosgrove and S. Daniels (eds), *The Iconography of Landscape*, Cambridge: Cambridge UP, pp.277-312.
- Hulme, P. (1986) *Colonial Encounters, Europe and the Native Caribbean 1492-1797*, London: Methuen.
- Kelman, J. (1992) *Some Recent Attacks: Essays Cultural and Political*, Stirling: AK Press.
- Lamming, G. (1960) 'The Occasion for Speaking', in *The Pleasures of Exile*, London: Michael Joseph.
- Lomba, Ania (1998) *Colonialism / Postcolonialism*, London: Routledge.
- Macaulay, T.B. (1972) 'Minute on Indian Education', J. Clive (ed.), *Selected Writings*, Chicago, Il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annikar, N.K. (1996) 'Creating a New Cultural Taste: Reading a Nineteenth-century Malayalam Novel', in R. Champakalakshmi and S. Gopal (eds.), *Tradition, Dissent and Ideology*, New Delhi: Oxford UP.
- Said, E.W. (1995) 'Secular Interpretation: The Geographical Element, and the Methodology of Imperialism', in G. Prakash (ed.), *After Colonialism*, Princeton, NY: Princeton UP, pp. 21-39.
- Sharp, J. (1993) *Allegories of Empire: The Figure of Woman in the*

- Colonial Text, London and Minneapolis, M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Spivak, G.C. (1985) 'Three Women's Texts and a Critique of Imperialism', *Critical Inquiry* 12 (1): pp. 243-261.
- Thiong'o, N. wa (1986) *Decolonising the Mind: The Politics of Language in African Literature*, London: James Currey.
- Viswanathan, G. (1990) *Masks of Conquest: Literary Study and British Rule in India*, London: Faber and Faber.

